



케이블채널 OCN 금토드라마 '38사기동대'의 주연 서인국(사진이) '케이블의 황태자'다운 면모로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해가고 있다. 사진제공 | OCN

지상파와 케이블 사이 '희비쌍곡선'

'38사기동대' 시청률 5.4%...OCN 역대 최고
지상파 부진, 9월 '쇼팽왕 루이'서 만회 각오

서인국의 힘이다. 케이블채널 드라마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만들어졌다. OCN 금토드라마 '38사기동대'가 자체 역대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5.4%)을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기꾼과 세금공무원이 손잡고 고액 제납자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이야기로 통쾌하게 '한방' 날린다. 탄탄한 스토리에 안정된 연기력까지 더해진 서인국이 그 인기 중심에 자리한다. 그런 그가 하반기 지상파 방송 드라마를 또

다른 무대로 삼는다. 하지만 이전 지상파 드라마 성적은 케이블채널에 비하면 아쉽기만 하다. 서인국의 활약상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케이블의 황태자**
서인국은 '38사기동대'를 통해 다시 한 번 '케이블의 남자'임을 입증하고 있다. 뛰어난 두뇌와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는 천재 사기꾼을 연기하는 서인국이 드라마 흥행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반반한 외모를 앞세워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사기를 치는 모습 등이 흥미를 자극한다. 연출자 한동화 PD가 "마치 신기를 지닌 것처럼 소름끼치게 연기를 잘 한다"고 할 정도다. 함께 주연하는 마동석과 '브로맨스'도 흥행에 한 몫 거든다. 서인국의 흥행 파워는 처음이 아니다. 연기

데뷔작인 tvN '응답하라 1997'을 시작으로 '고교처세왕'에 이어 잇따라 케이블채널 드라마에서 활약해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응답하라 1997'에서 '부산사나이'의 상남자로 여심을 자극했고, 전작 '고교처세왕'에서도 고등학생과 대기업 이사를 오가며 팔색조 매력을 뽐내 시청률 견인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 **'지상파의 고독남'**
케이블채널의 흥행 바람을 타고 건너온 지상파 방송에서는 그러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연타석 홀란을 치며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했던 그였지만, 유독 지상파 방송 드라마에서는 신통치 않은 성적을 받았다. '응답하라 1997'의 인기 속에 MBC 드라마 '아들녀석들'에 출연했지만, 한자리수 시청률

로 방송 내내 '조기종영'의 압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처음 사극에 도전한 KBS 2TV '왕의 얼굴'과 로맨틱 코미디 '너를 기억해'도 평균 5~8%의 시청률에 그쳤다. 이런 전력으로 신작 출연 요청이 끊길 만도 하지만 서인국에 대한 기대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다. 9월 방송 예정인 MBC 새 수목드라마 '쇼팽왕 루이'의 주연으로 나설 그는 그동안 겪은 이같은 '설욕'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호감도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재벌 상속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는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에서 코믹함과 진지함 사이를 오갈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배용준 침묵 깨고 日 아사히TV 방송 출연

■ 뉴스 인사이트

한류스타 배용준(사진)이 오랜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배용준은 17일 방송하는 일본 아사히TV 특집프로그램 '쿠로야나기 테츠코만 알고 있는 TV전설 60년사'에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하는 형태로 출연했다. 배용준이 2013년 일본 한류 10주년 행사에 참석한 이후 현재에 모습을 드러낸 까닭은 무엇일까.



에 이 같은 이벤트를 진행했다. 배용준은 드라마 '겨울연가'가 2003년 NH

K에서 방송된 이후 '은사마'라는 애칭을 얻고 인기를 모으면서 2005년 쿠로야나기가 진행하는 토크프로그램 '테츠코의 방'에 출연하면서 그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처음으로 토크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용준은 긴장을 많이 했지만, 일본에서 '전설'로 통하는 83세 쿠로야나기의 배려에 녹화를 무사히 끝마쳤던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작진의 출연 제안에 망설임 없이 흔쾌히 수락했다. 다만 직접 출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국내에서 영상을 촬영해 일본에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특히 이날 영상에서 배용준은 2005년 프로그램 출연 당시 제작진으로부터 선물 받은 팔찌를 직접 들고 메시지를 전했다. 11년이 지났음에도 보관하고 있다는데 쿠로야나기는 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 한편 배용준은 현재 내년 초에 태어날 2세를 위해 아내 박수진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TV 전설 60년사' 축하 영상 메시지 전해
여성 MC 쿠로야나기 테츠코 11년전 인연

'함부로 애뜻하게' 영상미 굿...사건제작의 힘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다양한 풍경 담아

8일 방송을 시작한 KBS 2TV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뜻하게'(사진)가 사건제작의 강점을 제대로 살려내고 있다. 이는 계절적 배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상미로 이어질 전망이다. '함부로 애뜻하게'는 방송 초반 액션영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을 비롯해 눈 내리는 겨울 국도에서 수지와 김우빈이 재회하는 장면 등으로 시선을 모았다. 1회 방송에서 김우빈이 수십 명을 상대하는 액션신과 차량 추격신은 영화를 방불케 했다. 이 같은 액션신과 차량신은 다소 여유로운 촬영일정 덕에 더욱 실감나게 구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회에서 2회로 이어지는 수지와 김우빈의 한적한 국도 재회 장면은 아름다운 배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왔다. 제작진 역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장면이다. 강원도와 경남 등 비슷한 풍경을 지닌 서로 다른 세 곳에서 나눠 찍었다. 이 역시 사건제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장면이다. 대개 두세달 전 촬영에 돌입하는 일반적인 드라마 제작 현실을 고려하면 7월 방송 드



라마에서 겨울을 배경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함부로 애뜻하게'는 11월부터 4월까지 긴 시간 여유롭게 촬영하며 봄, 가을, 겨울 등 다양한 계절의 풍경을 담아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제작사 삼화네트웍스의 박태영 본부장은 "사전제작을 한 덕분에 좋은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국내 곳곳을 돌며 촬영한 풍경을 방송으로 여유롭게 풀어낼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기존 드라마와 달리 사전제작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며 영상미를 최대한 살렸다"며 "회가 거듭할수록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후 기자 thiscase@donga.com

'성폭행 무혐의' 박유천, 향후 행보는?

검찰 송치 후 추가 소환·보강조사 가능성도
사회적 큰 물의...대외적인 활동 자제 예상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사진)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향후 사건의 추이와 함께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피소된 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기로 했다.(스포츠동아 7월11일자 12면 보도 참조) 박유천이 피소된 네 건에서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핵심 사항인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제 관심은 향후 검찰의 사건 처리 방향으로 향할 전망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은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후 처리 방향을 설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강수사 및 박유천 등 사건 관련자들에게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한 달여 동안 전담팀을 구성해 중



한적하고 면밀한 수사를 벌여온 만큼 그 결과는 충분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박유천의 향후 움직임에도 대중의 시선이 쏠린다.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복무 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다. 박유천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면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며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박유천을 첫 번째로 고소한 여성 A씨 등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갈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유천과 A씨 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 돈의 목적성 등을 살핀 뒤 그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그들 제스키스(사진)의 콘서트 일정이 확정됐다. 이들은 9월10일·11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펼친다. 2000년 해체 이후 16년 만에 자신들의 이름을 건 단독콘서트다. 당초 6월 단독콘서트를 예정했던 제스키스는 YG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한 뒤 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연기한 바 있다. 제스키스는 이후 본격적인 공연 및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신애, 악플러 공격에 SNS 비공개 전환



연기자 서신애(사진)가 악플로 인해 개인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변경했다. 11일 서신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만'이라는 말과 함께 계정을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서신애 소속사 모션미디어 측은 "최근 악플과 SNS를 자제하지는 회사 차원의 지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아직 어리기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서신애는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나를 욕한다'는 사진을 올린 뒤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말자"는 내용을 올렸다. 서신애는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한 아이돌 가수가 아닌 다른 가수를 좋아한다고 발언해 악플에 시달렸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앱스토어 게임 매출 랭킹			7월 11일 기준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스톤에이지	Netmarble Games	
2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3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4	검과 마법 for kakao	Longtu Korea Inc.	
5	프렌즈팝 for Kakao	NHN Pixelcube	
6	FIFA ONLINE 3M	NEXON Company	
7	히트	NEXON Company	
8	클래시 로얄	Supercell	
9	컴투스프로야구 2016	Com2uS	
10	갓 오브 하이스쿨	YD Online	